



8월 (주관 : 임규선 장로)

구분	안 내	봉 헌
1부	손혜원 이영정	전석환
2부	배중희 박분교 김팔숙 최귀숙	권중규 권순열 우영식 허영철
차량안내	정재설 이윤석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마애수양관 사타자교회 동가톤교회 동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C.C.C  
중국-장경식, 김기웅 태국-신동운 일본-조원철  
필리핀-이교성 미얀마-홍길주 마다가스카르-박재일  
경안여고 경안성로원 경안신육원 안동교도소 안동경찰서  
범양선교회 남중국선교위원회 러시아카프카스신학교 CTS  
국제기아대책기구 경북새터민선교회 원동교회 서미교회  
유동교회

예배모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오전 9:30	벤	엘
	2부	주일오전 11:30	벤	엘
찬양예배		주일오후 3:00	벤	엘
	수요기도회	11-2월 수요일오후 7:00 3-10월 수요일오후 7:30	벤	엘
새벽기도회	11-2월	월-토요일 5:30	엘	림
	3-10월	월-토요일 5:00	엘	림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엘	림
유치부		주일오전 11:30	베들레헴	
유년부		주일오전 9:30	베들레헴	
소년부		주일오전 9:30	사무엘	
중등부		주일오전 10:30	다윗	
고등부		주일오전 10:30	요셉	
청년부		주일오후 1:30	엘림	

오시는 길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 (옥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박종석	담임목사	박장덕
부목사	이종백 배장열 홍순진	교육목사	김영숙
원로장로	권영만 안연호 박정수 이교섭	교육전도사	권엘림
은퇴장로	김봉환 박용래 강신원 장부익 정유진 정호경 최태규 황천석	신앙지도자	김철수 설동환 서정용 정석진 이규훈 정동수 손강영 권영준 박영복 신상관 임규선 김희동
시무장로	박무주 정동수 손강영 권영준 이규훈 정동수 손강영 권영준	시무장로	박무주 정동수 손강영 권영준 이규훈 정동수 손강영 권영준
지휘	박수경	피아노	장은혜 이지혜
오르간	신강희 강근속 임혜광	신디	남시영 강계연 배의진



- 환영 \*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예배 \* 목요 경배와 찬양(이번 주 주제: 심판) :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엘림실
- 모임 \* 당회 : 오후 1시 30분, 당회실
- 말씀 \* 중등부, 고등부 여성성경학교 :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청년부 수련회 : 8. 3(목)~5(토) 교회,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8월 중보기도 통신 : 내용에 따라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 청소 : 오늘은 1팀이 담당합니다(본당, 계단, 화장실, 카페등).
  - \* 성경통독(80) : 박유분(8) 최순남(4)
  - \* 시설관리부 : 각 부서에서는 각 실 사용 후 정리정돈 및 냉, 난방기가 모두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 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3년 길분기도원 여름성회 : 7. 31(월)~8. 2(수), 저녁 8시, 새벽 5시 30분, 오전 10시 강사-이홍식 목사(대구 평산교회 원로목사), 31일(월) 저녁 집회 시 우리교회 예수아중창단 특송
  - \* 경안신학원 2학기 신(편)입생 모집 : 7. 24(월)~8. 31(목), 신학원과정(신학과)/2년, 4학기 수업료-학기당 35만원, 수업장소-경안노회 회관 3층, 문의 859-8002
  - \* 경안노회 장로산의회 제20회기 제69차 산행(원행)일정 : 10. 11(수)~13(금) 울릉도 일원 대상-경안노회 장로회원(부부동반 가능) 선착순 100명, 경비-1인당 490,000원, 신청-류중하 장로(010-9166-0729)
  - \* 금주의 휴가 : 이종백 목사(7. 31~8. 7) 이종기 장로님 휴가 관계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 차량운행은 쉽니다.
- 교인동정 \* 개업 : 김동우 청년(김진영 집사 아들) - 동치야식(신시장제유소 근처, 배민에서 배달 가능)
- 건축헌금 계좌 :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십일조, 감사헌금 계좌 :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 십일조 : 강도순 공태용 권인철 권춘희 권효숙 강경일 김광주 김병선 김선서 김성수 김세영 김수범 김순이 김인구 김경아 김진희 김병연 김현경 나희연 남수연 남재남 류병희 박명숙 박소담 박선형 배성근 변인화 설동환 송분남 신상관 오명선 이교섭 이복순 이승연 이요셉 이종기 이진영 임혜광 강보람 전대문 전영숙 정복수 정영기 조미영 조영애 최인자 최현관 허정자 무명명
- 감사 : 강도순 강순호 강순호 강양숙 공태용 권기환 권엘림 권효숙 김수범 김순애 김명호 김형호 김재원 김진영 김진희 김현경 김현경 나희연 남수연 남재남 류병희 문계현 민기식 민희환 민창재 박유분 배성근 변인화 설동환 송분남 신상관 오명선 이 교섭 이복순 이승연 이요셉 이종기 이진영 임혜광 강보람 전대문 전영숙 정복수 정영기 조미영 조영애 최인자 최현관 허정자 무명명
- 생일감사 : 김유용 김은자 정유진 주정봉헌 : 213명
- 건축 : 강도순 강순호 권기환 권효숙 강경일 김수범 김인동 나성기 류병희 박명숙 박재우 배명희 신상관 오명선 이 정 장석배 전영숙 장동수 정동수 정영기 최순남 최인자 하옥혜



2023 표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목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





### 주일낮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09:30  
2부 11:30

인도 : 1부 이종백 목사  
2부 배장열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39:7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38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53(시편 121편)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90장 | 다함께
- 증보기도 | 1부 : 전석환 집사  
2부 : 박무주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요한복음1:35~42 (산막p. 143) | 인도자
- 찬양 | 1부 : 결국엔 주님이셨네 | 예수아중창(김남진, 유훈석)  
2부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장차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송 |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이름 아시죠 | 다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시선
-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 다음주 기도 : I부 : 김남진 집사 II부 : 정동수 장로  
~~~~~



### 찬양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

15:00

인도 : 배장열 목사

-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강송열 권사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민수기20:1~13 | 인도자
- 설교 |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 배장열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양 | 다함께
- 축복기도 | 배장열 목사

◎ 다음주 : 중등부 헌신 예배

### 수요기도회

19:30

인도 :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이정자 집사
- 찬양 | 제7부 남선교회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마가복음14:53~54, 66~72 | 인도자
- 설교 | 멀찍이 그리고 함께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조경미 집사 찬양 : 제1여전교회

###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515장	277장	525장	279장	523장	342장
말씀	렘12:7-17	렘13:1-14	렘13:15-27	렘14:1-12	렘14:13-22	렘15:1-9



### 지난 주일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문 : 요한복음 1:19~34  
제목 : 그리스도의 일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따지듯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알고 네게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아닙니다. 회를 내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우리를 보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아시아 선지자가 선포하신 일을 할 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단지 물로만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가 바로 이 분이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바들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이 분 안에 편히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일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조연 역할을 감당해요. 고전4:1-2,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이 종은 들로스, 가장 비천한 종, 노예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바로 저 노예들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죠. 그러자 들로스를 "뤼페테스"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가장 비참한 들로스 같은 종이었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뉘페테스다,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뉘페테스는 조연, 봉사자 라는 뜻입니다. 먼저 들로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일꾼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일도 충성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막3:8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일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막3:20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6:31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밤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 열심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다른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충성스럽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늘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래서 감람산 깎개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까? 십자가라는 위기를 만나자, 야! 기도가 아니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고 여겨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려 갔다고 되어있죠. 항상 기도했죠 수많은 군중을 먹이는 일을 하고 난 뒤에도 기도하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 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힘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보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해왔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습관을 따라 늘 하는 기도가 뉘페테스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하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야 기도하는 성도들 있죠. 습관을 따라 늘 기도를 해야,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도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 먼저는 내가 들로스였다.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노예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박장덕 목사(2023. 7. 23. 주일 낮 예배 말씀)